

제목	국문	KMCC 코호트 지역사회 주민의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수진률에 관한 조사			
	영문	Breast and uterine cervical cancer screening rate in KMCC			
저자 및 소속	국문	신애선, 윤하정, 박수경 ¹ , 신해림 ² , 장성훈 ³ , 이건세 ³ , 이덕희 ⁴ , 강대희, 유근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 국립암센터 암역학관리연구부 ² ,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³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⁴			
	영문	Aesun Shin, Hachung Yoon, Sue Kyung Park ¹ , Hai-Rim Shin ² , Song-Hun Chang ³ , Kun-Sei Lee ³ , Duck-Hee Lee ⁴ , Daehee Kang, Keun-Young Yoo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¹, Division of Cancer Epidemiology and Control, National Cancer Center Research Institute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nk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³,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⁴</i>			
분야	역학 [암]	발표자	신애선 [전공의]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1년 11월 30일				
<p>1. 목적 우리나라 여성에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체 암발생의 2-3위를 차지한다. 이들은 조기검진을 통해 2차예방이 가능한 암종에 속한다. 정기적인 의사의 검진과 유방촬영술은 유방암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음이 외국에서 보고되었고 자궁경부암 역시 자궁세포진 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사망률감소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KMCC(Korean Multicenter Cancer Cohort)코호트에서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의 수진률을 알아보았다.</p> <p>2. 방법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함안군과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암검진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함안군 자료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충주시 자료를 분석하였다. 코호트 참여자들에게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 건강관련 행태, 질병과거력 및 가족력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여성에게는 부가적으로 월경-출산력 및 과거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검사 수진여부와 수진 시기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p> <p>3. 결과 함안군의 여성 대상자는 총 2740명 중 응답이 누락된 사람들 각 34명을 제외하면 유방암 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285명(10.5%)이었으며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919명(33.9%)이었다. 충주시의 여성 대상자 2898명 중 응답이 누락된 142명을 제외하면 561명(20.3%)이 유방암 검사를 받아보았으며 1519명(52.4%)이 자궁암 검사를 받아보았다고 응답했다.</p> <p>4. 고찰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대상지역인 함안군은 농촌 지역이고 충주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두 지역의 조기검진 수진률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수진률을 추정해볼 수 있으며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 지역적인 특성별로 수진률을 비교하여 조기검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집단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암 조기검진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p>					